



사업 결과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이드북의 몽골어 판과 영문판의 발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과정은 다소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특히 몽골의 의례, 지식, 관습, 민속의 번역은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거나 전문적인 난해한 용어와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를 서구의 문맥으로 전환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몽골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끝없는 원천의 보편적 영역을 망라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련의 연구자료 출판을 이루어내기 위한 심화활동의 구체적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각급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체들로의 도서보급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2010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 책이 젊은이, 학생,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실연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자극제로 쓰일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 우리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펼쳤으므로, 심화된 방향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몽골인들을 대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하여 우리와의 오랜 협력과 사업성과의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준 아태무형유산센터와 문화재청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